

Korea Center do Brasil

September 2011

Emerging Market Daily*

브라질 농업관련산업 동향

September 19, 2011

브라질 농업관련산업 동향

황보 덕 (Korea Center do Brasil 대표이사)¹⁾

국제 농산물의 시장환경 변화

브라질의 올해 농산물 수출은 850억 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최근 유럽 경제의 재정위기가 브라질의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가 주목되고 있다. 브라질 농무부는 브라질의 농산물 수출이 큰 변동없이 850억 달러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최근 국제 곡물시장은 피크 때와 비교하면 가격이 하락하였으나, 바그너 로시(Wagner Rossi) 농무부 장관은 세계적으로 높은 식량의 수요는 재정위기나 경제불황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브라질 정부는 러시아에 의한 식육류 수입정지조치의 영향이 있지만 기타 수출을 저해하는 요인은 한정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유럽은 브라질 농산물의 주요 수출대상지역으로 총 수출의 45%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최근들어 25%로 현저한 감소를 보이고 있으며, 대미 수출 역시 감소하고 있다.

세계 곡물시세의 상승 원인의 하나로 업계에서는 원자재에 대한 동격적인 투자편드를 지적했다.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투기성 자금이 1차산품 시장으로 몰려 들면서 수요공급의 원칙에 왜곡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제감속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원자재의 시세가 하락하는 경우에도 식량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이기 때문에 조정시기를 경과하면 가격은 안정되어 가는 것이 일반적이다.

투자편드 중에서는 투자대상으로써 원자재의 투자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또한 브라질의 농산물 최대 수입국은 현재의 세계 경제위기 중에도 그 영향이 상대적으로 미약한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권 국가들이다.

브라질 통상협회(AEC)에서는 수출의 감소를 예상하는 것은 지나치게 이른 판단이라고 지적하며, 큰 감소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국제 농산물 수출의 대부분은 선물계약에 의해 미리 이루어지기 때문에 물량과 금액 모두 큰 변화가 없을

1) Korea Center do Brasil(구: Arimex) 대표자 황보 덕은 한국수출입은행 브라질 지사장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중소기업청의 해외민간네트워크(브라질)과 INKE(글로벌벤처네트워크)의 중남미본부장을 맡고 있으며, 한국벤처협회와 합작으로 상파울루 벤처상품전시장을 운영하고 있음.
(Email : douglas@koreacenter.com.br)

것이라고 보고 있다. 예를 들면 대두(콩)의 경우 올해 예상 수출량의 75%가 이미 수량과 가격이 선물계약에 따라 정리되었으며, 나머지 25%중 15%도 가격은 이미 정해졌다.

하지만 설탕시세가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의 미국과 EU의 채무위기로 인해 더욱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어 올해 수출은 물량, 금액면에서 전년도를 밀돌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업계 정보지 Safra & Mercado는 7월에 설탕시세가 톤당 660 달러로 역대 최고를 기록하였지만 현재 605달러로 하락하고 있으며, 향후 몇 개월 안에 더욱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브라질 주요곡물생산 (100만톤)

	2009/10 실적 (A)	2010/11 (2010년12월 예상)	2010/11 (2011년8월 예상) (B)	변동율% (B/A)
전체	149,205	149,087	161,536	8.3
목화	1,194	1,835	1,953	63.6
쌀	11,661	12,573	13,731	17.8
웨이징	3,323	3,461	3,737	12.5
옥수수	55,968	52,560	56,337	0.7
대두(콩)	68,688	68,551	75,305	9.6
밀	5,026	5,779	5,882	17.0
기타	2,696	4,328	4,591	70.3

출처 : 농산물공급 공사(Conab)

농업기계 판매 증가

업계전문 컨설팅회사인 Agroconsult사에 의하면, 정부의 장려정책에 따라 브라질의 농업기계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의하면, 농업생산자는 향후 2020년까지 총 160억 real 상당의 농업기계를 구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농업기계의 구입은 공적자금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금융의 부족이 염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농가에 대한 기계구입대출 프로그램은 “식량증산 프로그램”을 통한 신용대출과 기타 사업발전 프로그램(Programa de Sustentacao do Investimento) 등 “농업기계근대화 대출 프로그램(Moderfrota)”을 통해, 브라질 사회경제개발은행(BNDES)으로부터 제공되고 있다. 현재 배정되어 있는 금액은 정부가 2011/12년간 농목부문을 대상으로 한 대출예산인 80억 real의 2배에 해당된다. 작년 농업용 트랙터 판매의 30%는 정부의 정책대출을 이용한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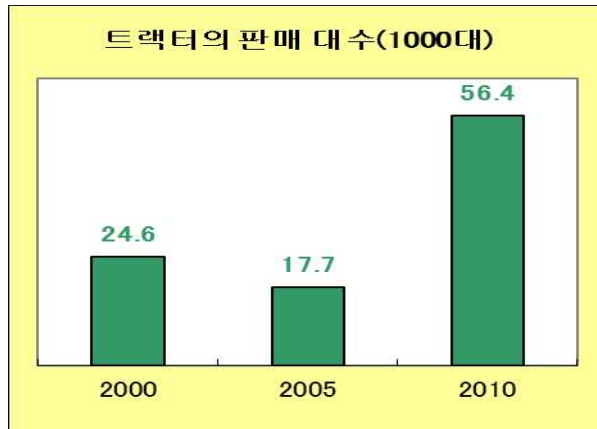
정부의 정책대출

농업용 기계의 구입을 위한 대출은 과거 10년동안 급증하고 있다. 2000년에 만들어진 Moderfrota를 통하여 농업 종사자들은 이미 30만 2,000대의 농업용 트랙터, 3만 7,800대의 수확기(콤바인)을 구입하였고, 향후 10년간 구입예상량은 각기 61%, 69%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과거 10년간 브라질 전국의 농업용 트랙터의 보유 대수는 10% 증가하여 62만대에 달하고 있다. 특히 100마력을 넘는 대형의 비율은 2000년부터 2010년동안 43% 증가하였고, 콤바인도 295마력을 초과하는 엔진의 비율도 작년 말기준으로 31%에 달하여, 이는 농업이 대형화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이들 농업기계의 판매가 증가하고 있는 이유로 공적자금의 제공이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다. Agroconsult에 의하면, 생산 농가의 대형기계 구입은 중국으로부터의 대량수입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공적자금은 농업부문의 근대화에도 크게 공헌하고 있지만 아직 충분하다고는 말할 수 없다.

예를 들어 평균 사용년수 10년을 넘은 농업용 트랙터의 비율은 2000년 당시 66%에서 2010년에는 48%로 감소했다. 이에 반해 3년 이내의 사용년수 비율은 13%에서 23%로 증가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평균 사용년수를 보면 11.2년으로 여전히 높은 편이다. 연 이모작을 하는 브라질의 기후경작 조건을 고려하면, 농업용 트랙터의 사용년수는 7년 정도가 적절하다고 보고 있다. 농업용 트랙터의 사용기간이 가장 짧았던 시기는 1980년말 당시 8년이였다. 이후 2000년에는 평균 12.7년이였다. 한편 콤바인의 사용년수를 보면 2000년대의 평균은 9.2년이였으나, Moderfrota의 도입 후인 2010년에는 6.9년으로 단축하고 있어 12년을 넘은 콤바인의 비율은 불과 5%이하이다. 사용년수 7년에서 12년 이상의 비율은 57%이다

최근 경작지의 헥타르당 투자액은 2005년의 213억 real에서 2010년에는 441억 real로 증가했다. 또한 농업에 종사하는 1인당 경작면적은 미국은 154헥타르임에 대하여 브라질은 불과 23헥타르이다. 브라질 남부의 농업지대와 거의 비슷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프랑스도 46헥타르에 달하고 있어, 브라질의 생산성이 낮음을 나타내고 있다.



출처 : Agroconsult사

< 참고자료 >

농산물공급 공사(Conab)
Agroconsult